

치료용 단백질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화 연구 현황

김창호[†]

파마리서치바이오

(changhau@nate.com[†])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사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쉼 없는 노력을 진행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상업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기술자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인정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탄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되었다. 이 같이 화장품의 기능성 및 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화장품 소재는 지금까지 대부분 천연물로부터 개발되었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효능이 있으면서 안전한 새로운 화장품 소재를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